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적극 추진”

광주일보 등 한신협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참석
대상 광역 송하진 전북지사
기초 최형식 담양군수 등 8명 수상
지역발전대상 송재호 민주당 의원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윤석열 후보,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명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뒷줄 왼쪽부터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최형식 담양군수,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일보 등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인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2면>
이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이 이젠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 됐다. 이를 위해선 자치와 분권이 중요 요소라며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폭발 위기를 겪는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다극체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을 살릴 방도를 마련하도록 일차원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대상 광역단체장 부문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초단체장 부문은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홍순현 부산 해운대구정장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이 수상장은 ▲지방분권국가 및 자치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기초·광역의회 자치입법 관련 조항 명시 ▲국세, 광역자치세, 기초자치세 종류 및 배분방식 명시 ▲상원을 지역대표로 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 ▲자치법원 설치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았다.
두 대선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 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회는 정책 공

약 방영을 위해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제 다극적인 지역 발전만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적 뜻을 받들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의 공약과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전두환 공과 발언 사과·주택청 신설”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해 "제가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국토개발 주택청 또는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의) 학살, 반란 등 정치 행위는 비민주적이며 용서할 여지가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이 잘한 일은) 많지 않은 정도인

것이며,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만든 제 발언은 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대체적으로는 저는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실용의 목표는 국민의 삶이고 국가의 발전이다. '진영을 너무 따지지 말자,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

면서 과학혁신 부총리제 제안과 관련해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는데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온다"면서 "국토 개발 주택청이나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사들로 구성된 협력체다. 지난 2003년에 출범한 이후에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역대 정부의 지역 관련 정책에도 공동 대응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새로울 것 없는 5·18진상조사위 2주년 보고 ▶6면
굿모닝 예향·남도 오디세이 미로 '영암' ▶18·19면
KIA, 외아수 브리토·투수 윌리엄스 영입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9 주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